구도심 상권 르네상스 '신바람'

군산시, 특화상품 개발로 상권 활성화 초석 마련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이 구도심의 상권활성화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8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중기부 국가 공모 사업으로 2020년 3월부터 시작해 현재 2년차 사업이 진행 중이며 '다시살아나는 장터', '새롭게변화하는 장터', '모두가 함께하는 장터'라는 3개의 테마로 1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중앙상가에 위치한 순대국밥 특화거리는 가게 앞 방치된 물건을 정리하고 고객선을 설치하는 개선사업과 함께 점포 메인 간판 정비를 포함한 외부 도색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새단장을 마쳤다. 특히, 새단장 기념 군산장터거리축제 제1회 국밥DAY행사는 코로나19로 몇 차례 연기됐으나 꾸준하게 맛집을 찾는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신영시장 친환경 생선건조장 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의 협업을 통해 막바지 작업 진행 중이다. 신영시장의 대표상품인 박대와 반건조 생선의 전용 건조장 건립을 통해 수산물을 테마로하는 즐길거리와 볼거리 제공으로 고객 유입을 확대하고 생산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통한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 대표 이미지인 '시간'을 중심 주제로 번성했던 구시장길의 역사가 녹아있는 점포나 오랜 기간 비어 있는 가옥 중에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해 창업희망자에게 5년간 무상임대하는 '거점공간 육성사업'에는 6개소의 49명이 몰려 뜨거운 관심과 함께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더욱더 밝게 했다.

이 밖에도, 각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테마 구역 설계 및 운영, 해당 상권 공실 내 창업 지원, 대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포함한 상인 인식 개선 교육 등 모든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상권르네상스 사업 홍보 및 상권과 소비자의 소통을 위한 홍보채널 운영 중이며, 젊은 소비자층 유입을 위한 온라인 이벤트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구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비록 군산경제 전체를 한번에 살리지는 못하겠지만, 본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가 점점 회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섬유 산업 발전을 모색한다'

활성탄 활용… 소방용 · 군용 등 다기능 섬유 제품 개발 기대

익산시가 섬유 활성탄을 활용해 향토산업인 섬유 산업의 발전을 모색한다.

지난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변화 대응을 위해 활성탄 섬유소재 활용사업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압력과 온도를 가해 탄화한 섬유를 활용, 필터나 위생 용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와 도비 등 143억원을 투입해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을 활성탄 섬유 상용화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상용화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등 관련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활동을 병행한다.

이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활성탄 섬유의 내화학·열·전기적 특징을 활용, 소방용·군용·의료용 다기능 섬유 제품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섬유산업 고도화 기반 확충은 물론 관련 소재의 생산과 원료 표준화, 응용제품 개발 등의 구축으로 섬유기업의 신활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를 마친 상태"라며 "2022년 상반기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우선 순위가 배정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화중고교와 업무협약

군산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군산평화중고등학교가 지난 29일 군산평화중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및 학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두 기관은 지식·인적·물적 자원의 상호교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 홍보 활동,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결혼이주 여성이 평화중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배형원 시의원은 "이번 교류협약이 양 기관에 서로 윈-윈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은영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가 지난 30일 대한노인회 익산시지부에서 제20기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한반도 평화 실현 위해 노력"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출범… 통일 공감대 확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가 지난 30일 대한노인회 익산시지부에서 제20기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20기 민주평통 회장 이·취임식과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 등이 진행됐다.

이해석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신임 협의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문위원들과 지역 내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통일에 대한 지역 여론 수렴과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전을 준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20기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는 총 1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통일 의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백신 2차 예방접종 완료자 50%돌파

군산시의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접종 완료자가 50%를 돌파했다.

지난 30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8시 기준 2차 접종완료자는 50.77%를 넘어섰으며 1차 접종률은 76.32%를 넘어섰다. 이는 전국평균 1차 75.5%, 접종완료 48.0% 접종률을 넘어서는 수치다.

시는 또 단계적일상회복 준비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주요계획을 밝혔다.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사전예약은 지난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으며 접종은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실시된다.

이후에는 민간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 또는 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잔여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또 소아청소년(12~17)의 추정 대상은 1만5,530명으로 화이자백신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된다. 사전예약은 16~17세는 오는 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해 오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종할 수 있다.

12~15세는 오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전예약을 실시해 오는 11월1일부터 11월27일까지 접종하게 된다.

임산부 추정 대상은 1,314명으로 오는 8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해 18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추가접종(부스터샷)은 60세이상 고령층 그 외 고위험군은 오는 5일부터 대상자군별 순차적 사전예약을 실시해 25일부터 접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치료 병원종사자 등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시설입원, 입소 종사자는 오는 11월 10일부터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오는 11월 15일부터 추가 접종을 실시하게된다.

/군산=한경봉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조촌동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신청 서비스' 호응

군산시 조촌동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신청 서비스'는 신청 대상자에는 해당하나 국민지원금을 직접 수령하기에는 도와줄 다른 가구원이 없고 특히, 장애 및 고령 등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해 국민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 신청서 작성 및 카드 전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조촌동은 자생조직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저소득 반찬지원 대상자, 고령 및 거동불편자 등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면 직원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신청서 작성 및 카드를 전달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 3기 강좌 모집

군산시는 오는 13일까지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제3기 강좌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강좌 수는 450개 강좌이며, 학습자가 5인 이상의 성원이 되면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홈페이지 동네문화카페 창에서 등록된 강사와 사업주의 정보를 참고하고, 학습장(사업주)와 협의해 원하는 장소로 강좌를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동네문화카페 강사, 학습장소(상업,비상업시설)에 대한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온라인 등록을 받은 결과, 현재 강사 548명, 사업장소는 559개소가 등록돼 있다.

또한 수강생 참여 활성화 및 동네문화카페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등록된 사업장소 중 2기 때 미배정된 상업시설 224개소에 수강생 모집 홍보 현판을 제공, 시민들이 동네문화카페 참여 학습장소를 동네에서도 알 수 있게했다.

현재 운영되는 제2기는 273강좌로 1,487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10월 셋째 주에 종강을 앞두고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